

---

## 우리말 속의 일본말, 모두 청산할 수 있을까?

이한섭 · 고려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

해방 이후 우리말 속에 들어와 있는 일본말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각종 단체들의 한글 운동, 문교부의 ‘우리말 도로찾기’(1948), 그리고 국립국어원이 생긴 뒤에는 국어 순화 운동 등 각계의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교육계, 언론계, 학계 등도 이에 동참한 것은 물론이다. 1948년 1월 문교부에서 발행한 ‘우리말 도로찾기’의 머리말을 보면 지금 읽어도 비장감을 느끼게 한다.

중략—— 우리말이 있는데도 구태여 일본말을 쓰는 일이 많았고, 또 우리에게 없던 말을 일어로 쓸에도, 한자로 쓴 말은 잡다운 한자어가 아니요, 왜식의 한자어로서 그 말의 가진 바 뜻이 한자의 본뜻과는 아주 달라진 것이 많다. 이제 우리는 왜정에 더럽힌 자취를 말끔히 씻어 버리고 우리 겨레의 특색을 다시 살리어 천만 년에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려 하는 이때에 우선 우리의 정신을 나타내는 우리말에서부터 씻어 내지 아니 하면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우리

말 도로찾기'에서 쓰지 말자고 했던 '아이즈(合圖)나 '아타루(省たろ), '아이테(相手), '앗싸리' 등을 지금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말에서 일본말이 거의 사라졌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일까?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아니올시다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우리가 해방 후 60년 이상 노력해서 사용하지 않게 된 일본말은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주로 일본어 발음으로 사용하는 것들이다. 이에 비하여 한자 표기어(지금은 물론 한글로 쓰지만)는 아직도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고 오히려 더 뿌리 깊게 자리를 잡은 느낌이 든다. '우리말 도로찾기'에서 그렇게 쓰지 말자고 했던 건물(建物), 내역(內譯), 입구(入口), 할인(割引) 등 순수 일본말은 아직도 요지부동하고 비용(費用)이나 신고(申告), 신청(申請), 출하(出荷) 등은 쓰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불편할 정도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제 그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 한다. 일본어에서 온 말을 내보내려 해도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쓴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은 이들 일본어 어휘가 익숙해 있어서 버리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이들은 이미 우리말 어휘 체계 속에 자리 잡은 것이다. 또 하나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이다. 개화기 이후 한국어에 들어온 일본어 어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 어휘는 물론 철학, 물리학, 공학, 의학 등 전문 용어까지 생각하면 그 수가 수만 단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도 일본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묻고 싶다. 우리말에 들어온 중국어 어휘와 서양어는 어찌할 것이냐고, 외국에서 온 말을 모두 추방하고 우리말만으로 이 복잡 다양한 오늘날 세상을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대통령, 국회, 의회, 입법, 사법, 행정, 경찰이라는 단어는 물론 각종 법률 용어와 주요 개념들이 일본어에서 온 것이 많은데 이들을 다 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 보아도 뻔하다. 아마도 이들을 대체할 어휘를 새로 만들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 국민들이 잘 따라간다는 보장도 없다.

차제에 제안 드리고 싶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 가운데 정비할 것은 계속 정비해 나가되 이미 우리말로 굳어진 것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왔던 이제는 우리말로 보아주었으면 한다. 이미 우리말로 굳어진 외국말을 내쫓고 새로운 말을 만드는 노력 대신 현재 쓰고 있는 말을 더 잘 다듬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